

## 제10차 재미한인수의사회 총회

### 및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유 인 재

(경북수의사회 대구시 분회장)

Philadelphia의 Sheraton Hotel은 교외의 조용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재미한인수의사회 총회가 개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초청받아 이 회의에 참가하는 인원은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모두 7명이었다. (1명은 동반자)

길고 지루한 끝없이 넓은 창공을 헤치고 공항에 내리자 재미한인수의사회 지흥민 회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그는 우리 일행을 한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으로 안내하여 맛있는 한국요리를 오랫동안 먹게 해주었다. 그리고 곧장 Sheraton Hotel에 도착하였다.

모두 반가운 대한민국의 수의사들이 있다. 산구회장의 인사를 마치고 진지하고도 재미있게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하병래 회원의 「젖소의 Embryo Transfer」에 관한 발표는 매우 흥미있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Small Animal보다는 Food Producing Animal을 다루는 수의사들이 더욱 많은 축를 차지하고 또한 나 자신이 젖소를 주로 다루는것이 이 연제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했는지 모른다.

이순우 대한수의사회 사무처장의 인사와 기념품 교환등의 순서를 마치고 회의는 끝이었다.

우리 일행은 우선 Philadelphia에서 새롭게 개업한 홍학석 회원의 Clinic에 들렸다. 그는 한국 수의계의 원로이며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중직을 맡았던 이현수 박사의 사위이기도 하였다. 10여대를 주차할수 있는 Parking시설과 응접실, 접수실, 원장실, 입원실, 격리실, 병리시험실, 지하의 넓은 회의실, 탈의실, 휴게실 등등 한국의 그것과는 격차가 심하였고 어느 한국의 개인병원이 이처럼 깨끗할까 감탄을 하면서 계속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곳에는 미국인 수의사 2명과 한국인 수의사 1명, 그리고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중 경북수의사회원 4명은 현지 동물병원에서 Training을 갖기로 계획한 바 있어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Dr. 조를 만났다. 그는 그곳 보건소에 소장을 역임한뒤 얼마전 더 상위 관청의 부책임자로 근무중인 Newjersy주의 고급 관리이었다. 그는 공중위생 분야에서 미국의 많은 백인들보다도 더욱 신뢰를 받아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공무원이 된것이다.

Dr. 조는 타고난 성격이 어려움에 처한 남을 도와주는 일이 오늘의 그의 위치가 되게 한 것이다. 심지어는 이웃 주민들이 흠은 어디서 구하여야 하는지를 그에게 부탁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런 분을 만나게 되어 우리들의 Training 일정을 밤새 연구하고 다음날 공항 Bus 정류장으로 직접 그의 차로 안내하여 우리 일행을 Washington D. C로 향하는 Grey Haund Bus를 타게 하여 주었다.

그곳에는 유정식 회원이 경영하는 Clinic이 있는 곳이다. 그는 재미한인수의사회 총무직책을 맡아 많은 수고를 하셨던 분이였다.

그는 새로 지은 좋은 집에 우리 일행을 안내하여 침식을 함께 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하였다.

그곳 Clinic에서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진료를 하고나면 그외시간은 그 자신과 가정 을 위한 자유시간이었다.

그는 Small Animal을 진료하는 전문수의사 이었다. 그의 Spay수술(임신중절)은 1시간에 10두 이상 해낼수 있는 베테랑이었다. 과연 한국인의 손재주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것! 바로 그곳 이웃의 미국백인이 경영하는 Vet. clinic 이 있지만 경쟁을 물리치고 더 많은 환자를 다루고 있는 비결을 물었더니 "처음은 황인종이라고 많은 고충을 겪었지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되지요"라고 하면서 한번 인정을 받게되면 그들끼리 소문이 퍼져 황인종이기 때문에 더욱 선전이 잘된다고 하였다.

수많은 X-Ray Film을 내어 일일이 설명하여주던 Dr. 유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명하다.

우리 일행은 염치를 무릎쓰고 하병래 회원의 Clinic에 들렸다. 그는 Wisconsin주에서 Lar-

ge Animal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미국에서 수의과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였다.

조용하고 넓은 뒷뜰을 갖고 있는 주택은 그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방마다 에어컨이 가동되어 시원하였다. 그는 병원 2개를 경영하고 있었고 백인수의사를 고용하고 많은 직원을 갖고 있는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분이였다. 그리고 주2회 Small Animal을 진료하는 시간을 두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의 진료차는 움직이는 병원이었다. 즉시 병원과 연락되는 송신기와 백신보존용 냉장고와 각종 진료용 기구와 약품, 진료복과 세면용 소독수가 자동으로 나오는 장치까지 구비되어 있었다.

우리 일행은 그곳에 불임증의 대책, 4 위전위 수술, 유방염, 마취술, 부제병, 심지어는 사료학, 착유기 점검법에 이르기까지 밤이 늦도록 연구하였다.

"수의사는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 책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의 2층 서재는 조용하고 깨끗한 도서실이었다.

그는 정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작은 체구는 단련되어 단단하였고 구리빛 피부색은 그가 얼마나 야외에서 일을 하였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내조하는 Dr. 하의 부인은 두딸을 키우면서 전화를 받고 집안일을 하는 모습은 한국의 대동물 수의사의 부인보다 더욱 열심이었고 오늘의 Dr. 하가 되기까지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 일익이 되었으리라 생각되었다.

저녁식사 무렵이었다. 젖소가 down 되었다는 Emergency연락을 받고 급히 가보니 그 소는 이미 체온이 하강하고 있었고 전두동염으로 이미 Brain에 까지 염증이 파급되어 치료가 불

능이었다.

그는 그것을 실험동물로 사용하기로 주인에게 승락을 받고 마음껏 개복수술을 하여 보았다.

그외에도 축주의 기분을 살펴보면서 100여두의 직장검사를 함께 하도록 하여 번식장애의 원인과 치료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였다.

지금은 요란한 젤트 엔진의 소음을 들으며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 한국회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친교와 기술교류를 통하여 더욱 더 유익한

모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이 대회를 주선하신 대한수의사회 회장과 재미한인수의사회 회장이하 여러 임원들께 감사사를 드린다.

창밖으로는 푸른창공에 구름이 지나간다. 재미한인수의사회원들의 모습과 일터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지나간다.

비록 이국 멀리 America에 가 있지만 모국의 명예를 걸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하느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맺는다.

1983년 7월중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 ( ) : Cases Period : July 1-31, 1983

병명 Diseases Species	탄	기	우	부	주	주	상	뉴	파		
	Anthrax	Blackleg	Bovine Tuberculosis	Brucellosis	Hog Cholera	Swine Erysipelas	Rabies	Newcastle Disease	Pirplasmosis		
시·도·명 Cities Provinces	02	02	02	02	10	10	04	01	02		
1. 서울 Seoul	-	-	-	-	-	-	-	-	-		
2. 부산 Pusan	-	-	-	-	-	-	-	-	-		
3. 대구 Dae gu	-	-	-	-	-	-	-	-	-		
4. 인천 In cheon	-	-	-	-	-	20 (1)	-	-	-		
5. 경기 Gyeonggi-do	-	-	6 (4)	-	-	-	-	-	-		
6. 강원 Gangwon-do	-	-	-	-	-	-	-	-	-		
7. 충청북 Chungcheongbug-do	-	-	-	-	-	-	-	-	5 (2)		
8. 충청남 Chungcheongnam-do	-	-	-	-	-	24 (1)	-	-	-		
9. 전북 Jeonlabug-do	-	-	-	-	49 (2)	3 (1)	-	-	-		
10. 전남 Jeonnam-do	-	-	-	-	-	-	-	-	3 (3)		
11. 경북 Gyeongsangbug-do	-	-	-	-	-	-	-	-	-		
12. 경남 Gyeongsangnam-do	-	-	-	-	6 (1)	-	-	-	-		
13. 제주 Jeju-do	-	-	-	-	-	-	-	-	-		
계 Total	-	-	6 (4)	-	55 (3)	47 (3)	-	-	8 (5)		
누계 Total in this year	-	-	18 (15)	-	1,653 (80)	51 (5)	-	19,305 (3)	11 (6)		
전년도계 Total in last year	-	4 (1)	24 (14)	8 (7)	9,801 (130)	6 (1)	1 (1)	35,150 (9)	27 (11)		

Note : ○ The following notifiable diseases do not exist in Korea ; Foot and Mouth Disease, Rinderpest, 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Glanders, Swine Vesicular Disease.